

與 ‘공수처 우선 협상’ 여론전...4당 공조 모색

4당 섹범 달라 성과 미지수
한국당은 공조 차단 주력
원내대표 돌파구 마련 실패
민생법안 31일 처리 합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명의 고위 공직자가 주요한 수사 대상으로 안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광운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생 외면·개혁 반대 정당의 틀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국민 명령 이행정당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정할 일정에 맞춰 오는 29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같이 여야 4당과의 공조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소 야당의 공수처 섹범이 다르고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 합의 문에도 얽혀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우선협상’ 입장을 밝힌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며 공수처 법안 저지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한국당은 특히 이달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다는 여당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4당이 검찰개혁·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실무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12월 초 분당 가시화

유승민 “12월 탈당” 시사
손학규 “기회주의자...빨리 나가라”

바른미래당의 분당(分黨)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당 시점을 12월로 못 박고 나서면서다.

다만 변혁에 소속된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 모두가 유 의원이 제시한 ‘결행 시점’에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유 의원의 바람대로 12월 초 ‘집단 탈당’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21일 유 의원의 ‘12월 초 탈당’ 발언에 작심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탈당을 4월부터 생각했고 12월에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유 의원은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

다. 그는 이어 “유 의원은 그동안 계파정치와 분열 정치를 앞세웠고 진보를 배제하고 호남을 배제한 수구보수 정치인”이라며 “자기가 만든 당 완전히 폼비박산 만들어 놓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12월 초 탈당 계획을 다 시금 강조하며 맞섰다. 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한 뒤 결실을 통해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통화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협상해야 하니까 그런(선거법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3당 원내대표 인사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바른미래당 오신환(맨 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

리얼미터, YTN 의뢰 조사
7개월 전보다 찬성 비율 줄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0.2%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이 줄고 반대가 늘었다.

3월 조사에서 65.2%였던 찬성은 이번 조사에서 13.8%포인트 줄었고, 23.8%였던 반대 응답은 17.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70.7% vs 반대 22.4%), 경기·인천(55.2% vs 38.1%), 서울(54.0% vs 39.0%), 대구·경북(54.0% vs 41.3%), 30대(62.8% vs 32.1%), 40대(59.3% vs 33.6%), 20대(55.4% vs 35.2%), 여성(53.4% vs 36.8%)에서 많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일왕이나 천황이나...외통위 ‘일왕(日王) 호칭 논란’

강경화 “DJ 방일 후 ‘천황’ 사용”...추미에 “국회 공식입장은 일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1일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일왕(日王) 호칭 논란’이 벌어졌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왕 대신 ‘천황(天皇)’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의원은 국감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뒤 “강 장관이 답

변 과정에서 일왕을 천황이라고 했는데 국회 공식 입장은 일왕이다. 그렇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상대국이 쓰는 명칭을 쓴다는 취지에서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며 “이는 오래된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그런 말은 일본에서 외교 행위를 할 때 써야 한다. ‘유어 하이니스’(Your highness·

전하)라는 표현도 있지 않느냐”며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일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할 것 없이 다른 의원들도 ‘일왕-천황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정부의 공식 용어가 뭐냐. 위원장은 아느냐.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일왕이 맞는 것으로 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다 일왕으로 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천황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적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가 외교적으로 쓸 때와 국회나 언론을 상대로 쓸 때 일왕 호칭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라며 호칭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정희 한전 감사 “광주 동남갑 출마 검토”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21일 광주 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광주 동남 갑 지역구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주위에서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광주와 동남 갑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이 감사



는 “지금 광주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부상시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를 미래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내야 하며 동남 갑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트윈스틸)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871280
462810973
576214302
631749802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